

“완전한 일상회복 원년”

송하진 도지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용기와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가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포효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힘과 활력이 우뚝 솟아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위기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은 방역과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도정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끝을 모르는 감염병의 기세와 더 깊어진 도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도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없이는 희망도 미래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3차 집중과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전복도정은 임인년 새해를 완전한 일상회복의 해, 착실한 전복도약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같다면 두려움 일도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의 굳세고 힘찬 기세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전라북도가 도민 여러분의 곁에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욱 사랑받는 전북교육”

김승환 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요. 무엇보다 방역 일선에 선 의료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엔 더위와 겨울엔 추위와 싸워가며 밤낮없이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어땠나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있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도 더러 있었습니. 게다가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야 하는 숨 가쁜 일상을 보내야 했지요. 전북교육청은 지난 시간 최선을 다해 우리 학생들과 교원, 그리고 직원들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고 체감하는



어려움의 질량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늘 미안하고, 깊이 고마워 따름입니다.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교육을 든든하게 지켜낸 여러분이말로 전

북교육의 진정한 주역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전 북교육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늘 묵묵히 행정영역에서 함께 해주시는 직원들, 모두 깊이 감사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우리 학생들과 교원,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을 아끼고 응원해준 학부모님들께 더욱 사랑받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도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재난·재해가 잦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상차로 벼 병해충 피해가 극심했고, 때 이른 한파는 배추 무름병 등 농작물 재배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고, 우리의 일상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파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 도민은 이 코로나 19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수소와 탄소, 금융산업과 농생명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기후 변화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취약계층도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변화하는 지방 분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재정립해 전북도정이 도민의 권익 확대와 도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늘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인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다움으로 더 좋은 세상 열어가는 한 해”

김승수 전주시장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꿈을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인 덕진권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8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된 것도 새해를 열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립미술관, 한국문화원원콘텐트체합집진관, 법률을 주제로 한 로



가예산 1조 원, 지방재정 2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로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숲속시립도서관, 글쓰는 도서관에 이어 올해도 연화정 검이불루 도서관 서화예술마을 도서

파크, 완산철봉 한빛마루공원, 전주독립영화의 집, K-Film 영상 허브, 전북권역 재활병원 등 굵직하고 소중한 기관이 건립 준비를 마쳤고, 국

관, 제2의 여행자도서관이 문을 열고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송천도서관은 품격있는 책놀이터로 재개관을 합니다. 공공의 공간을 최상으로 만들면 시민 누구나 최상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힘이고 문화의 힘입니다. 전주사람이라는 자부심, 전주에 산다는 것의 뿌듯함을 느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변화의 파도가 물이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혼자서 아닌 연대의 힘으로 더 나은 살림살이,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이 주역 되는 자치분권 시대 열어갈 것”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새 희망의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임인년(壬寅年), 힘찬 호랑이의 기운이 가득한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각에게 큰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사회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여전히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과 사회질서 유지를 통해 K-방역의 가치를 빛내왔던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을 지키는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지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다각적인 소통과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다져왔던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힘을 키우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된다면, 그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전주시의회는 여러분을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실현 완수”

강임준 군산시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로 믿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주시면 올해는 우리의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지난해 이뤄냈던 성과들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어 군산시 제도약의 원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 희망을 등불삼아 그간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해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에 매진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실현을 완수하고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마부정제 각오로 쉽 없이 달리겠다”

정현울 익산시장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익산시는 그 간 다져온 탄탄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더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며 전국의 모범시대로 극찬을 받았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결실들을 거뒀습니다. 국토부의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선정을 계기로 복합개발과 호남을 대표하는 철도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전국 최초·전국



최장의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사업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蹄止)의 각오로 쉽 없이 달리겠습니다.

와 혁신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혁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호남 최대 철도광과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가슴 뛰는 미래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까운 내일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익산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익산시장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적성해의 자세로 희망길 열 것”

유진섭 정읍시장

2022년 밝고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버리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읍은 지난해 다양한 향토자원의 잠재가치를 찾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연수 도시 기틀과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내장자수 시장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가 공영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산은 중심



으로 한 생태 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관광지 기반 조성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을 모아서 연수 도시 기틀과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내장자수 시장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가 공영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산은 중심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시 민 여러분의 신뢰와 화합을 통해 극복해 왔듯이 내년에도 노적성해의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희망, 의지의 결집을 통해 정읍의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정읍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